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안 재 진

(서울대학교)

김 지 혜

(한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이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기존 연구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 측면인 사회적 갈등에 주목함으로써,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 미혼모 시설 8곳 중 6곳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들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미혼모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갈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미혼모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지지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시설내 미혼모에게 개입하는데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 즉,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던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개입 외에,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관계망과의 관계를 제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입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미혼모, 사회적 관계망, 자아존중감

1. 문제제기

임신과 출산은 주요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임신은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으로 인식된다(Barrera, 1981).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의 지위는 지극히 열악하다. 이들은 사회적 일탈로 간주되는 혼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공공연한 도덕적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며,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한창 학업이나 진로를 위한 준비에 힘써야 할 시기에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중단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을 경험함으로써, 미래의 진로나 이후의 삶이 출산 전과는 전혀 달라지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미혼모들을 위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제도가 매우 빈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미혼모들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스트레스적 사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출산 후에도 건강한 삶을 영위해나가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미혼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은 미혼모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미혼모 관련 연구들은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그 동안의 미혼모 연구는, 미혼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 연구와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 내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김근조, 1984; 한국여성개발원, 1984; 오재숙, 1999; 김만지, 2000; 변명숙, 2000; 김현진, 2001; 김지혜, 2002; 김혜련, 2002; 김혜수, 2002; 노현정, 2002; 이시백, 2002), 미혼모가 가진 중요한 개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을 살펴본 몇 안 되는 연구들도(한영주, 1998; 이지연, 2001; 고숙경, 2002; 문태정, 2003)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인 측면인 사회적 지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미혼모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갖는 긍정적, 부정적 기능을 폭넓게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이중적인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은 긍정적 기능의 결여와는 의미상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이 가질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의 중재과정에 주목하고 있다(Wills, 1985; Sandler et al., 1989; 이영자, 1995; Moran and Dubois, 2002).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의 기능을 하며,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에 유익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의 심리적 적응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을 보호하고, 고양시킴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Cohen and Wills, 1985; Thoits, 1985; Wills, 1985; 이영자, 199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주목하여, 혼전 임신과 출산이라는 스트레스적 상황에 처한 미혼모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을 중재하는 변수로서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이영자, 1995; 김희화·김경현, 1999; 배영미, 2001; 신연희, 2001; 김지현, 2002; 김순희, 2002), 자아존중감은 미혼모의 퇴소 후 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미혼모들의 향후 적응에 사회적 관계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간과했던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

2.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개념 및 현황

미혼모(unwed mother-unmarried mother)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되는 남자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의식 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했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노현정, 2002). 그러나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정부측의 개념규정에 의하면, 미혼모란 그녀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별거, 이혼, 과부로서 본 남편 외의 아기를 가진 여성, 즉 미혼은 물론 기혼까지 포함시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임신중절과 혼외임신일 경우에는 미혼모라 부르지 않으며, 단지 사실혼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혼전에 분만 예정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인 자를 미혼모로 간주하고 있다(한인영, 1998).

미혼모들의 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197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여, 1976년에 2,080명, 1981년에 3,959명, 1982년에 5,751명, 1987년에 12,504명으로 큰 폭의 증가현상을 나타냈다(이지연, 2001).

또한 미혼모의 연령층도 점차 낮아져 90년대 들어서면서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0년 말 현재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 7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6~20세의 미혼모가 50.8%(432명)을 차지하며, 15세 이하도 30명(4.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4년 한국여성개발원과 96년 서울시부녀복지연합회가 전국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비교해 보아도, 10대 출산자가 24.9%에서 49.7%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숙경, 2002).

특히 이들 10대 미혼모의 증가는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전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도한 스트레스적 사건을 겪음으로써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아울러 학교 중퇴나 가출 등으로 인해 향후 이들 미혼모의 장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따라서 미혼모들에 대한 개입은 이들이 출산 후 사회에 돌아가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미혼모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심리적 적응

개인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심리적 적응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Kaplan(1983)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부적응의 관계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두 단계로 설명한다. 첫 단계는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감소된 자아존중감이 부적응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이영자, 1995). 즉,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위협하거나, 존중,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소된 자아존중감은 부적응을 증가시킨다.

한편,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의 기능을 하며,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부적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자아에 대한 위협은 광범위한 스트레스 요인들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것이고, 또한 스트레스 사건의 상당수는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이나 가치 저하를 포함하는 대인관계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Wills, 1985). 즉,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경험은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스트레스 사건 자체의 암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며,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사회적 관계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연쇄적 경험을 통해 감소된 자아존중감은 부적응을 증가시킨다고 한다(한영주, 1997).

실제로, 여러 연구자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부모의 알코올중독(Roosa, Sandler, Beals, and Short, 1988),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Simmons, Rosenberg, and Rosenberg, 1973), 그리고 부모의 이혼(Parish and Taylor, 1979)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일반 아동과 청소년들에 비해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Cohen, Burt, and Bjorck(1987)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트레스적인 생활 사건이 이전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낮은 자아존중감을 예측한다고 보고했다(Sandler et al., 1989에서 재인용). 신애현(199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총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몇몇 이론가들은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감소가 부정적인 정서상태(Harter, 1986), 우울(Abramson, Seligman, and Teasdale, 1978), 혹은 일탈행위(Kaplan, 1983)로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Sandler et al., 1989).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영자, 1995; 김희화·김경현, 1999; 배영미, 2001; 신연희, 2001; 김지현, 2002; 김순희, 2002).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 바람직한 행동의 동기화, 학업성취, 정신건강, 생활 스트레스에의 대처능력 등에 정적으로 관련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학업성적, 우울,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인간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미혼모들의 퇴소 후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미혼모들은 사회적인 일탈로 간주되는 혼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임신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atten, 1981;

Zongker, 1977, Barnett, Papini, and Gbur, 1991에서 재인용).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무기력감과 무능력감을 고조시켜 임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낮은 자아존중감을 임신의 선행 요인이 아닌 결과로도 설명할 수 있다(Barnett, Papini, and Gbur, 1991).

특히 다른 사회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 자신은 낙인과 냉대로 인해 엄청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며(이시백, 2002), 이러한 낙인과 스트레스는 미혼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협한다. 미혼모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이 미혼모가 되는데 영향을 주던, 미혼모가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던 간에 결국에는 청소년 시기 미혼모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배영미, 2001). 이러한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은 혼전 임신과 출산이라는 위기 상황 하에 있는 미혼모들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부적응을 줄일 수 있는 주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은 미혼모의 이후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한영주(1998)와 문태정(2003)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퇴소 후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자아존중감을 설정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미혼모를 위한 개입의 방향을 새로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3)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을 정의하는 방식은 연구자에 따라, 연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연구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크게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은 한 개인이 어떤 사회적 조직망에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접촉빈도, 밀도, 안정성, 동질성 등이 포함된다. 반면, 기능적 측면은 어떤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평가로, 지지출처, 지지형태,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미혼모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중시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인에게 지각된 지지가 중요한 이유는 객관적인 지지 자원이 있다는 것과 개인이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타인에게서 지지를 제공받겠다고 하여도 그것을 지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지로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Schaefer et al., 1982, 이영자, 1995에서 재인용).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사회적 지지로 알려진 긍정적 기능과 사회적 갈등이라 일컬어지는 부정적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Rook, 1984; Major, 1997)으로 보기로 한다.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관심은 최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이론과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수많은 연구에서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는 광범위한 스트레스적 생활사건들로부터 비롯되는 불행한 결과를 감소시키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ok, 1984).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영향을 검증한 국내 논문들을 보면, 사회적 지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연희·박경자, 2001; 김애경, 2003), 청소년의 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양돈규, 1997; 박진아, 2001).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양돈규, 1997), 사회적 지지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적응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원, 2003).

한편 미혼모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10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건강 및 부모의 장기적인 교육적, 직업적 성취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ldwin and Cain, 1980; Furstenberg and Crawford, 1978, Barrea, 1981에서 재인용), 청소년 미혼모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증상, 특히 우울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Barrera, 1981; 고숙경, 2002). 또한 미혼모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태정, 2003).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이들 연구자들의 관심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가 보상 뿐 아니라 대가를 수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회교환이론가들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는다. 긍정적 상호작용 뿐 아니라 부정적 상호작용도 조사대상자의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Shinn, Lehmann and Wong, 1984). 실제로,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지지는 저소득층 편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갈등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조안, 2000), 사회적 지지와 갈등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도 마찬가지로 쌍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선영, 2003).

그러나 그 동안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연구한 연구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인 측면, 즉 사회적 지지에만 관심을 기울여온 듯하다(Rook, 1984; Shin, Lehmann and Wong, 1984; Barrera, Chassin and Rogosch, 1993). 많은 연구자들이 관계의 특성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를 혼동하여 사용해 왔으며(Shin, Lehmann and Wong, 1984),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 비해 갈등적인 사회적 관계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렇듯 연구자들의 관심을 사회적 지지망에만 집중시킨 것은 사회적 관계와 부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몇몇 주제에 대한 탐구를 제한시켰다고 볼 수 있다(Barrera, Chassin and Rogosch, 1993).

그러나,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도 그것이 동시에 갈등의 원천일 경우에는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데 효과가 없을 수 있다(Barrera, 1981).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기능이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으로 인해 그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와 갈등을 동시에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혼모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혼모가 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과의 갈등과 가족 및 친척간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대인관계에서의 소외감, 미혼부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잘못된 남성상을 갖게 되는

등(김상숙, 1988), 사회관계망 및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는 대체로 임신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기를 피하며 가족은 미혼모에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냉대하는 등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후 가족이 동정적 반응을 보인 경우도 적지 않았고, 물질적인 도움과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연구결과(안순덕, 1984)로 보아 미혼모에게 있어 가족은 커다란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한편 지지와 갈등의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두 측면인 이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일 때에만 가능하다. 사실상,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와 갈등의 상관관계가 미약하며, 이 둘은 같은 연속선상의 두 끝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실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왔다(Rook, 1984; Barrera, Chassin and Rogosch, 1993). 즉 사회적 갈등은 단지 사회적 지지의 결여가 아닌, 또다른 사회적 관계망의 측면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이 미혼모의 안녕(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확장시키고자 시도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지지와 갈등을 출처별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4)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사회적 지지 관련 문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두 가지 중재과정은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도움을 통한 중재이다(Heller, Swindle, and Dusenbury, 1986; Thoit, 1986, Sandler et al., 198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자아존중감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과 적응의 중재과정에 초점을 둔다.

먼저, 사회적 관계망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rter(1987)는 자아존중감의 두 가지 원천으로, 스스로가 중요한 활동을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에 대한 인지를 꼽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주위사람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발달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부모, 교사, 동료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하였다(Mead, 1984, 한영주, 1998에서 재인용). 따라서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평가한다고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며 반대로 열등하게 평가한다고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킴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Cohen and Wills, 1985; Thoit, 1985; Sandler, 1989; Moran and Dubois, 2002). 부정적인 환경적 사건에 의해 부과되는 요구가 현재 개인의 대처능력과 자원을 초과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일단 사건을 스트레스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그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효능감, 중요한 사건에 대한 통제력의 결여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효능감, 통제력 결여를 가져오는 결과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Wills, 1985).

Cohen and Wills(1985)는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같은 변수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심리적 적응을 증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는 대처 노력을 지속하도록 이끄는 자아존중감이나 자기가치감을 고양시킴으로써,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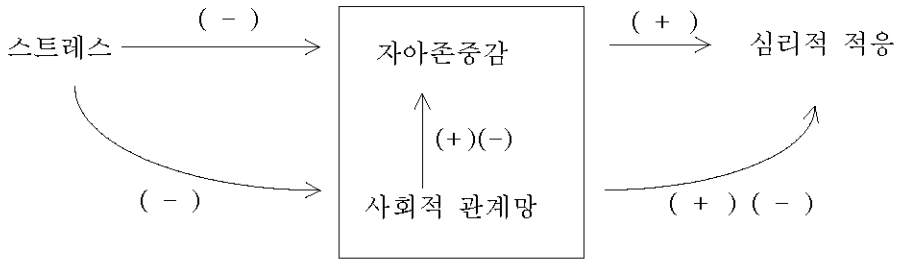
또한 Moran and DuBois(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조사하였는데, 중재모형, 중재 및 직접모형, 직접모형 중 중재 및 직접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Sandler(1989)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보호하는 세 가지 기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 둘째, 스트레스 사건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며, 셋째는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경험을 증가시킴으로써, 부정적 사건의 효과에 대하여 반작용을 가하는 것이다.

미혼모들의 경우 이미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보호하는 세 가지 기능 중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능에 주목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미혼 임신과 출산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미혼모들의 자아존중감을 보호함으로써, 미혼모들의 이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는 한편, 미혼모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갈등은 미혼모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혼모들의 이후 적응이 부적응적일 것임을 예측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미혼모들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경험을 증가시킴으로써, 혼전 임신과 출산이라는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이미 자아존중감을 위협받고 있는 미혼모들에 대해 반작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미혼모들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밖에 기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체계적인 증가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상관이 있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녀가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가정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난다(Burt et al, 1988; 안경영, 1991, 한영주, 199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외에 이들 요인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 1>은 위에서 살펴본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상황하에 있는 미혼모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증대과정과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그림 중 box 부분에 해당).



<그림 2> 미혼모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

3. 연구방법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미혼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은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설계 및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전국에 소재한 8개 미혼모 시설 중 조사에 협조해 준 6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003년 5월 19일부터 2003년 6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시설관계자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배부에 앞서, 시설관계자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문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입회하여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 205부의 설문지 중 183부가 회수되어, 89%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35부를 제외한 총 148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조사도구

(1) 자아 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차원의 거트만 척도로서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한 후 개별적인 4점 문항의 단순합계로 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8$ 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김인숙(1994)의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조성희(1999)가 재구성한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세 가지로 구분된 사회적 지지 유형에 대하여 각각 2문항씩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지의 출처별로 지지의 정도를 1점부터 5점까지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서적 지지는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타인이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감정을 길러주는 지지이며, 정보적 지지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지식, 충고의 제공하는 것이며, 물질적 지지는 돈이나 재화,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도록 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13$ 으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미혼모들의 연령과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지 및 갈등 출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고숙경(2002)의 척도를 참고로 하였다. 고숙경의 연구에서는 지지의 출처가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학교 선생님, 사회복지사 및 상담종사자, 종교관계자, 미혼부 등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0대 미혼모들의 수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임신 전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응답한 미혼모의 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학교 선생님을 제외한 총 7개의 출처를 사용하였다.

(3) 사회적 갈등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들의 지나친 간섭, 과도한 요구, 원치 않는 도움을 주는 정도, 비난, 무관심, 무시로 정의한 장연진(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장연진(2001)은 원효종(1997)이 사회적 갈등 척도로 사용한 '지나친 간섭', '과도한 요구'에 대한 문항과 Rook(1984), Rautkis, Koeske and Tereshko(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조하여 유조안(2000)이 16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 중에서 '무관심', '비난', '부적절한 도움', '무시'에 대한 문항을 결합하여 총 6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내용은 '요구하는 것이 많아 부담스럽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반대하는 적이 많다',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모두 내 탓이라고 비난한다, '나의 문제에 대해 들으려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든다'이며, 사회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응답자가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장연진(2001)의 척도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846$ 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임신관련 요인

이 밖에 기존 연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연령, 학력, 직업유무, 종교유무,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형태, 부모의 교육수준)과 임신관련 특성들(미혼부와의 관계지속 여부, 임신희망여부, 출산을 결정하게 된 요인, 출산을 혼자 결정했는지 여부)이 설문에 포함되었다.

4.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명	빈 도		변수명	빈 도	
연 령	10대	66(44.6)	직업유무	있 다	87(58.8)
	20대	74(50.0)		없 다	61(41.2)
	30대	7(4.7)			
	무응답	1(.7)			
교육수준	중졸이하	23(15.5)	가족구조	양 친	77(52.0)
	고졸이하	96(64.9)		한 부모	59(39.9)
	대졸이상	29(19.6)		안 계 심	8(5.4)
				무 응 답	4(2.7)
종 교	기독교	53(35.8)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73(49.3)
	불 교	18(12.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39(26.4)
	천주교	13(8.8)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4(9.5)
	무 교	63(42.6)		300만원 초과	11(7.4)
	기 타	1(.7)		무 응 답	11(7.4)
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74(50.0)	모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67(45.3)
	고 졸	56(37.8)		고 졸	67(45.3)
	대졸이상	12(8.1)		대졸이상	8(5.4)
	무 응 답	6 (4.1)		무 응 답	6(4.1)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세로, 최연소는 14세이고 최고령은 39세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20대가 50.0%, 10대가 44.6%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27명)와 고등학교 재학(8명)을 포함한 고졸이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64.9%), 그 다음으로는 대재 이상(19.6%), 중졸 이하(15.5%) 순이었다. 또한 종교는 무교가 4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독교(35.8%), 불교(12.2%), 기타 순으로 보고되었다.

시설 입소 이전의 직업 유무에 대해서는 직업이 있었다가 58.8%로, 직업이 없는 경우(41.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산출을 직업에 대한 기준으로 하여 학생인 37명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자의 가족 배경과 관련된 특성에서, 가족 구조는 양친이 모두 있는 경우가 52.0%로 가장 많았고, 이혼이나 별거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이 39.9%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 소득 수준은 100만원 이하가 4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였으며(26.4%), 200만원 이상은 16.9%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약 1/2 정도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어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의 경우 중학교 중퇴를 포함한 중졸 이하가 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37.8%), 대졸 이상(8.1%)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와 고졸이 같은 비율(45.3%)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이 5.4%로 나타났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마친 부의 비율이 8.1%로 모에 비해 좀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의 비율 또한 모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부의 교육수준이 모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임신·출산 관련 특성

조사 대상자의 임신 및 출산 관련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지의 임신 관련 특성

변수명		빈도	변수명		빈도
미혼부와의 관계	자주 연락	87(58.8)	출산 결정 요인	낙태기술에 대한 두려움	29(19.6)
	가끔 연락	20(13.5)		낙태시기를 놓쳐서	66(44.6)
	헤어짐	36(24.3)		아기에 대한 사랑	17(11.5)
	무응답	5(3.4)		기 타	33(22.3)
				무응답	3(2.0)
임신 희망여부	희망함	18(12.2)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혼자 결정	50(33.8)
	희망하지 않음	126(85.1)		미혼부	31(20.9)
				가족	24(16.2)
	무응답	4(2.7)		기 타	38(25.7)
				무응답	5(3.4)

조사 대상자의 임신·출산 관련 특성은 임신 희망 여부, 임신 이후 미혼부와의 관계지속 여부와 출

산을 결정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며,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미혼부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는 자주 연락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8.8%), 그 다음으로는 헤어졌다(24.3%), 가끔 연락한다(13.5%) 순으로 나타났다. 자주 연락하는 경우와 가끔 연락하는 경우를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약 70% 정도가 임신 이후에도 미혼부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산을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는 낙태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4.6%), 그 다음이 낙태시술에 대한 두려움(19.6%)으로 나타나 낙태 요인과 관련되어 출산을 결정하게 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혼자 결정했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많은 비율의 미혼모가 스스로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미혼부(20.9), 가족(16.2)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 이후 출산에 미혼부와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타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종교인, 상담자, 친구, 미혼모 경험자 등의 응답이 소수 있었다.

3) 시설내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

(1) 미혼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

미혼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은 전체 6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지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전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종교관계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 종사자, 미혼부로 나누어진 지지의 출처별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답한 정도를 점수화하여 합산한 결과이다. 점수 분포는 최하 0점에서 최고 210까지 나올 수 있는데,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경우 최하 25점에서 최고 201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104.96, 표준편차 37.89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점수 범위의 중간값(105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지지 유형별 사회적 지지수준

미혼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물어보는 6개의 문항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살펴볼 수 있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은 각각 2문항이며, 각 문항당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종교관계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 종사자, 미혼부로부터 받는 지지 정도를 합산한 것이 각 유형별 지지 수준으로 나타난다. 각 유형별로 가능한 점수의 분포는 최저 0점에서부터 최고 70까지이다.

미혼모들이 인식하기에, 가장 높은 지지 수준을 보인 유형은 정서적 지지로 평균 36.18, 표준편차 12.81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정보적 지지로 평균 35.75, 표준편차 15.19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는 평균 33.02 표준편차 12.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나 정보적 지지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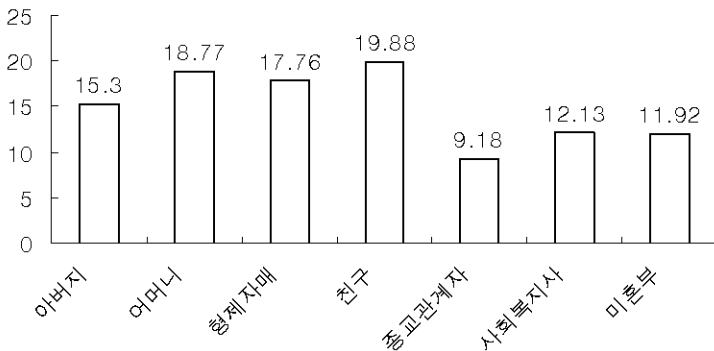
며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금전적 지원이나 아플 때 간호를 받는 물질적 지지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미혼모들이 경제적 필요나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지지 유형별 사회적 지지수준

유형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정서적 지지	36.18	12.81	9	70
정보적 지지	35.75	15.19	8	70
물질적 지지	33.02	12.91	7	65

② 지지 출처별 사회적 지지수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응답자들이 대상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지지의 원천에 관한 분석은 <그림 2>와 같다. 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이 가장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출처는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가 자신의 임신사실을 안 후 가족이나 친척보다는 친구와 상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한영주, 1998). 한편 가족 중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자연스러운 동성간 유대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후 무관심이나 냉대보다는 위로와 지지를 받았다는 연구결과(한영주, 1998)를 뒷받침한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소원했던 경우라도 어머니가 임신한 자신을 오히려 감싸주고 챙겨주어 어머니에 대해 죄송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어머니로부터 많은 지지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숙경, 2002).



<그림 2> 지지 출처별 사회적 지지 수준

한편 미혼부와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미혼부로부터

받는 지지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부들이 미혼모의 임신 상황에서 적절한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 연구에서 남편이나 남자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는 심각한 인생 사건을 겪고 난 후 여성의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Shinn, Lehmann, and Wong, 1984), 응답자들의 경우 미혼부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그다지 지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여성에게 책임의 소지를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혼모 뿐 아니라 남성, 미혼부에게도 성 교육, 임신 상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미혼모와 미혼부와의 관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지지 출처에 따른 지지유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를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각 지지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0점이다. 분석결과, 정서적 지지 수준과 정보적 지지 수준은 친구, 어머니, 형제자매 순으로 높게 나타나, 종합적으로 살펴본 사회적 지지 수준의 특성과 비슷한 결과를 제시해 준다. 그러나 돈이나, 재화,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해소토록 해주는 물질적 지지의 경우는 어머니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친구, 형제자매, 아버지 등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부분의 지지라는 특성상 친구보다는 어머니가 가장 높은 지지 출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 각 지지출처별 지지유형의 특징

지지 출처 지지유형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종교관계자	사회복지사	미혼부
정서적 지지	5.10	6.27	5.98	6.97	3.27	4.47	4.10
정보적 지지	4.89	6.22	5.99	6.92	3.27	4.47	3.95
물질적 지지	5.31	6.47	5.78	5.98	2.63	3.17	3.85
사회적 지지	15.3	18.77	17.76	19.98	9.18	12.13	11.92

* 숫자는 평균치를 나타냄.

(2) 미혼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갈등 수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인 사회적 갈등은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거나 감소시키는 일련의 행동으로 파악되는데(유조안, 2000), 미혼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갈등 수준 역시 사회적 갈등을 물어보는 6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갈등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전체 사회적 갈등의 수준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종교관계자, 전문 상담자 및 사회복지사, 미혼부에 대해 응답자들이 답한 정도를 점수화하여 합산한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미혼모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수준은 최저 0점에서부터 최고 210점까지 나올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갈등은 최하 12점에서 최고 170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70.33, 표준편차 31.93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갈등 수준은 중간값을 밑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로 갈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응답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갈등의 경우 그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개인

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장연진, 2001).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적 갈등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긍정적 상호작용 뿐 아니라 부정적 상호작용도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hinn, Lehmann and Wong, 1984). 따라서 사회적 갈등은 단지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상태가 아니며, 그 크기가 작더라도 독립된 실체로서 분석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① 갈등 유형별 사회적 갈등 수준

미혼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수준은 과도한 요구, 지나친 간섭, 부적절한 도움, 비난, 무관심, 무시의 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대 35점까지이다.

미혼모들이 가장 크게 지각하는 사회적 갈등으로는 '지나친 간섭'으로 평균 12.87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연령이 20대 전후로 사회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정체성이 성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은 응답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지각하는 갈등은 요구하는 것이 많아 부담스럽다는 내용의 '과도한 요구'(평균 12.52, 표준편차 6.11)로 나타났다. 그 밖의 비난이나, 부적절한 도움, 무관심, 무시는 11점을 전후로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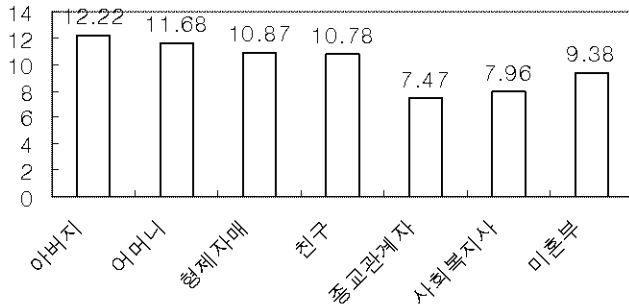
<표 5> 갈등 유형별 사회적 갈등 수준

유형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과도한 요구	12.52	6.39	2	35
지나친 간섭	12.87	6.11	2	32
부적절한 도움	11.44	11.44	2	31
비 난	11.52	11.52	1	35
무 관 심	11.39	11.39	1	29
무 시	10.56	10.56	2	31

전반적으로 유형별 갈등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미혼모들이 특정 유형의 사회적 갈등을 겪기보다는 임신이라는 스트레스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을 골고루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나 심리사회적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갈등 출처별 사회적 갈등 수준

사회적 갈등의 수준 역시 응답자들이 대상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혼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갈등 수준을 갈등 출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갈등 수준이 가장 높은 갈등 출처는 아버지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어머니와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형제 자매와 친구와의 갈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교관계자와의 갈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갈등 출처별 사회적 갈등 수준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네 번째 순위인데 비해(<그림 2> 참조), 사회적 갈등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지지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한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개입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데 동일한 대상과의 관계가 지지의 원천인 동시에 갈등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Shinn, Lehmann, and Wong, 1984). 이는 사회적 지지 측면만을 연구했을 때 파악하기 힘든 부분으로, 사적 관계망의 구성원이 경우에 따라 문제를 경험하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더 심한 스트레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또한 사회적 갈등 원인의 한 출처로써 어머니와 관계를 인식하게 되면, 단순히 어머니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구조적 측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좀더 본질적인 관계의 질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도 그것이 동시에 갈등의 원천일 경우에는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Barrera, 1981).

<표 6> 각 갈등 출처별 갈등 유형의 특징

갈등 출처 \ 갈등 유형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종교관계자	사회복지사	미혼부
과도한 요구	2.25	2.16	1.93	1.91	1.22	1.45	1.58
지나친 간섭	2.39	2.29	2.00	1.89	1.27	1.41	1.60
부적절한 도움	1.88	1.89	1.76	2.00	1.26	1.28	1.35
비난	1.92	1.92	1.83	1.85	1.16	1.29	1.53
무관심	2.00	1.75	1.68	1.56	1.45	1.31	1.61
무시	1.77	1.66	1.65	1.54	1.10	1.20	1.61
사회적 갈등	12.22	11.68	10.87	10.78	7.47	7.96	9.38

* 각 수치는 평균치를 나타냄

미혼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갈등은 중간 및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기 모호한 면이 있다. 이 밖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갈등의 원천으로 나타난 종교관계자,

사회복지사 등을 제외하면, 각 출처별로 그 차이가 비교적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지 수준에서 각 출처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를 보인다.

갈등 출처별 사회적 갈등 수준을 각 갈등 출처별 제공되는 갈등 유형의 특성과 수준으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각각의 갈등유형은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되어, 각 유형의 최고 점수는 5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총합인 사회적 갈등 수준의 특징과 대부분 유사하다. 아버지는 각 갈등 유형에서 고르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각 출처별로 비슷한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혼부의 경우 무관심과 무시 유형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미혼모가 미혼부가 무관심하고 무시한다고 느끼는 것은 임신과 관련된 문제나 미혼모의 문제에 있어, 미혼부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방관자로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지지 수준 분석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미혼모 문제에 대한 책임이 미혼모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내용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수준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을 물어보는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 분포가 최하 12점에서 최고 40점까지로 나타났으며, 총점 평균은 25.39, 표준편차 4.94로,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53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수를 같은 척도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장은영(2001)의 연구결과인 2.90점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명희(1997)의 연구결과인 2.94점, 최은정(1998)의 대학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 2.77점에 비해, 그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동일한 인구학적 구성을 가진 대상은 아니지만, 이들 집단과의 비교결과로 미루어볼 때,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7> 미혼모의 자아존중감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총 자아존중감	25.39	4.94	12	40

4)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 즉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갈등이 미혼모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타 관련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Pearson 적률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기능 유형 및 부정적 기능 문항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적 특성에 해당하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는 정(+)적인 관계에 있고, 갈등적 특성에 해당하는 과도한 요구, 지나친 간섭, 비난, 무관심, 무시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에서 사회적 지지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 또한 조사대상자의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him, Lehmann and Wong, 1984)를 지지해 줌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의 이중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8>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갈등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과도한 요구	지나친 간섭	부적절한 도움	비난	무관심	무시
자아존중감	.273**	.222**	.275*	-.259**	-.191*	-.045	-.203*	-.253**	-.295*

*p<.05, **<.01

한편, 회귀분석에는 사회적 지지와 갈등의 총합 외에 기존연구에서 미혼모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임신관련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회귀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수	β	t	Sig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008	.070	.944
	학력	.261*	2.398	.018
	직업유무	-.024	-.251	.802
	종교유무	.153	1.735	.086
	소득수준	-.167	-1.817	.072
	가족형태	-.239*	-2.665	.009
	부의교육수준	.319*	2.773	.007
임신·출산 관련요인	미혼부와의관계	-.042	-.451	.653
	출산결정요인	-.304*	-3.515	.001
	임신희망여부	.008	.085	.933
	혼자결정여부	-.042	-.499	.619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	지지수준	.272*	2.916	.004
	갈등수준	-.279*	-3.043	.003

R²(조정된 R²)=.391 (.302)

F=4.398**

*p<.05 ** p<.01

본 회귀모형의 모형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수

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391로, 약 4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 수준($\beta=.272$, $p=.004$)과 갈등 수준($\beta=-.279$, $p=.003$)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모들의 자아존중감은 높고,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난다. 또한 본 변수들은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β 값도 각각 .272, -.2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다른 변수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와 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일부 존재하나(부의 교육수준, 출산결정 동기), 부의 교육수준이나 출산결정 동기 등은 이미 주어진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비해, 미혼모가 지각하는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은 실천적 함의 면에서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지각된 지지의 수준과 갈등 수준의 상대적 영향력의 값이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갈등 수준의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입을 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갈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제 변수 중에서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미혼모의 학력($\beta=.261$, $p=.018$)과 부의 교육수준($\beta=.319$, $p=.007$), 가족형태($\beta=-.239$, $p=.009$) 및 출산을 결정하게 된 동기($\beta=-.304$, $p=.001$)로 나타났다.

먼저 미혼모의 학력은 고졸이하와 고졸이상으로 더미 변수화(고졸이하=0, 고졸이상=1)하여 분석하였는데, 미혼모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의 교육수준을 고졸이하와 고졸이상으로 더미 변수화(고졸이하=0, 고졸이상=1)하여 분석한 결과, 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일수록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다는 연구결과(Burt et al., 1988; 안경영, 1991, 한영주, 1998에서 재인용)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 형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석하였는데,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자녀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은 자녀가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높게 나타나며(Burt et al, 1988; 안경영, 1991, 한영주, 1998에서 재인용),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지각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다(김애경, 2003)는 기존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중요한 것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가 아닌 가족생활의 질적인 측면, 즉 가정의 화목도나 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을 결정하게 된 동기에 대한 변수는 ‘낙태하기가 두려워서’, ‘낙태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의 경우를 낙태 관련 요인으로 묶어, 낙태와 관련된 요인으로 출산을 결정하게 된 동기와 그 밖의 요인(종교적 이유, 아기에 대한 사랑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낙태관련요인=1, 그 외=0). 분석결과 미혼모가 낙태와 관련된 요인으로 출산을 결정할수록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미혼모들이 아기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자신 스스로의 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에

대해서 더 수용하게 되고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오재숙, 1999)와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즉, 출산 요인과 관련된 문항에서 낙태와 관련된 요인은 미혼모의 두려움으로 인한 결정으로 여러 대안들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기 결정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반면, 그 밖의 문항, 즉 종교적 이유, 아기에 대한 사랑, 아이의 입양이 가능하므로,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등은 선택을 하게 된 동기와 이유, 대안 확인 등 합리적인 자기 결정 과정을 거친 결정으로 비교적 미혼모 개인의 선택권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시설내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과 관계망의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된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세로, 2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 구조면에서는 양친이 모두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임신 관련 특성에서는 대부분이 희망하지 않은 임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을 결정하게 된 동기의 절반 이상이 자발적이고 심사숙고한 자신의 선택이 아닌, 낙태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를 놓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막기 위한 좀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족과 미혼부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나 혼자 스스로 결정했다고 보고한 미혼모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미혼모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함으로써,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많은 미혼모들이 미혼부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측면은 앞으로 미혼모문제에 개입하는데 있어 미혼모 뿐만 아니라 미혼부에게도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시사해 주었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였던 미혼모의 사회 관계망의 특성을 긍정적 기능인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기능인 사회적 갈등 측면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미혼모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물질적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나 미혼모들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심리정서적인 면에 좀더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물질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혼모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지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지 출처는 친구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어머니, 형제자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출처로부터 지지 수준이 낮은 것은 그러한 지지출처와의 관계형성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

로 여겨진다. 사회복지사나 전문가와 관계형성을 맺고 있는 경우에도 지지 수준이 높지 않아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각 지지 출처별 지지 유형의 특징·수준을 살펴본 결과, 친구가 각 유형에서 높은 수준의 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어머니의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모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갈등 수준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상하의 분포가 비교적 유사하였다. 미혼모들이 가장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지나친 간섭이었으나, 대부분의 유형에서 비슷한 갈등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관계망 속에서 미혼모들이 느끼는 갈등은 특정 유형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을 획일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사례마다 다양한 측면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개별화된 개입을 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미혼모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미혼모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의 정도를 지지 출처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지지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갈등 출처별 갈등 유형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모든 갈등 유형에서 아버지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미혼모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사들은 비교적 지지도가 높은 자원, 즉, 어머니나 친구 체계와의 연계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갈등적 관계에 있는 아버지를 미혼모가 해결해야 할 문제 속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아버지와 딸이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더 나아가 미혼모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족체계 전체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각 갈등 출처별 갈등 유형의 특징·수준을 분석한 결과 미혼부는 다른 유형에 비해 무관심과 무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부가 미혼모의 임신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미혼부와 미혼모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갈등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동일한 가족이나 친구가 지지의 원천인 동시에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높은 수준의 지지도를 보였던 모와 친구의 경우 갈등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은 각각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서로를 통제하여 같은 모형에 넣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갈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시설내 미혼모에게 개입하는데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둔 개입에서 관계망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게 하여 좀더 다양한 측면에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관계망과의 관계를 제거하거나 때로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에 개입을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중간의 집 등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때로는 미혼모들에게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가족 체계로의 무조건적인 복귀가 아닌, 좀더 긍정적인 지지 자원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상호작용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개입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 미혼모 집단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가족이나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의 편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실천적 함의는 시설입소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와 갈등 척도는 각각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척도이기는 하나, 관계망의 서로 다른 측면을 측정한 통합된 척도가 아니라, 개별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지지와 갈등 두 측면을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도를 사용한 것은 사회적 관계망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측정하는 통합된 척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기에 보다 적절한 통합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고숙경. 2002.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영실. 2000. “청소년 재임신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만지. 2000. “미혼모의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희. 2002.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 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351-372.
- 김연희·박경자. 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귀인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제22권 제2호: 49-64.
- 김은희. 1994. “삶의 기대가 자존감과 문제해결 인식에 미치는 영향: 남녀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 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2002. “미혼모를 위한 생태체계적 지지집단 개입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 2002. “10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01. “미혼모 시설의 서비스 개선방안”.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수. 2002.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김경현. 1999. “청소년 초기의 자아존중감과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4호.
- 노현정. 2002.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태정. 2003. “미혼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민아. 200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자기 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영미. 2001. “청소년 미혼모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명숙. 2000.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선진. 1997.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응방식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애현. 1998.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연희. 2001. “자아존중감, 청소년 비행,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3집 제1호: 107-132.
- 안재진. 2003. “한국 미혼모 시설의 운영실태 및 미혼모 욕구조사”, 『홀트사회복지연구』 제3호.
- 양귀화. 2001.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 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재숙. 1999. “아기장래 결정집단 프로그램이 미혼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 1990. “도시 빈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조안. 2000. “저소득층 편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백 등. 2002.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
- 이영자. 1995.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원숙. 1992.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와 임상적 개입의 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원숙. 1995.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이론: 실천적 접근』. 서울: 홍익재.
- 이지연. 2001. “시설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행숙. 2002. “청소년 미혼모 정책에 관한 연구: 한·미 비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연진. 2001. “도시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영. 2001.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양상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 1998. “대입 수험생의 스트레스반응양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 한영주. 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 1998.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서울: 학지사.
- 허선영. 2003.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rera, M. Jr. 1981.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s". in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 H. Edited by Gottlieb.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Barrera, M. Jr., L. Chassin, and R. Fred. 1993.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onflict on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 and Nonalcoholic Fa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02-612.
- Berry, D. S. and J. S. Hansen. 1996.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96-809.
- Bolger, N. and J. Eckenrode. 1991. "Social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Anxiety during a Major Stressful Ev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440-449.
- Byrne, B. 2000.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Fear, Self-Esteem, and Coping Strategies in Adolescence". *Adolescence* 35(137): 201-212.
- Chatters, L. M., R. J. Taylor, and H. W. Neighbors. 1989. "Size of Informal Helper Network Mobilized during Serious Personal Problem among Black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3): 667-676.
- Cohen, S. and T. A.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rcoran, J. 1999. "Ec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Pregnancy: A Review of the Literature". *Adolescence* 34(135): 603-619.
- DuBois, D. L., C. A. Bull, M. D. Sherman, and M. Roberts. 1998. "Self-esteem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A Social-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5).
- Harter, S. 1986. "Processes underlying the construct,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self-concept in children". in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3. Edited by J. Suls and A. Greenwald. Hillsdale, NJ: Erlbaum.
- Hudson, D. B., S. M. Elek, and C. Campbell-Grossman. 2000. "Depression, Self-Esteem,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among Adolescent Mothers Participating in the New Parents Project". *Adolescence* 35(139): 445-453.
- Lepore, S. J. 1992. "Social Conflict,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Evidence of Cross-Domain Buffering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857-867.
- Major, B., M. L. Cooper, J. M. Zubek, and C. Cozzarelli. 1997. "Mixed Messages: Implication of Soci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Within Close Relationship for Adjustment to a Stressful Life Ev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349-1363.
- Major, B. et al. 1990.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52-463.
- Passino, A. W., T. L. Whitman et al. 1993. "Personal adjustment during pregnancy and adolescent parenting". *Adolescence* 28: 97-122.
- Rook, K. S.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097-1108.
- Sandler, I. N., P. Miller, J. Short, and S. A. Wolchik. 1989.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in distress". in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Edited by D. Belle. New York: Willey.

- Shinn M., S. Lehmann, and N. Wong. 1984.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55-76.
- Thoits, P. A. 1985.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in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Edited by I. G. Sarason and B. R. Sarason. Hague,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
- Wills, T. A. 1985. "Supportive func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ocial support and health*. Edited by S. Cohen and S. L. Syme. Orlando: Academic Press.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on Unmarried Mother's Self-Esteem

Ahn, Jae-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Ji-hye

(Hannam University)

In Korea, since the systematic efforts to help unmarried mothers are rather limited, the unmarried mother's social relationship is expect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the adjustment of unmarried mothers after the birth of a bab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on unmarried mother's self-esteem.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a negative aspect of social relationship, social conflict, which has been ignored by the previous researches.

For this study, survey method was employed. The respondents of the questionnaire were 205 unmarried mothers staying at six out of eight institutions for unmarried mothers available in Korea. The multiple regression and other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was, the higher the level of self-esteem of unmarried mothers was.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was, the lower the level of self-esteem of unmarried mothers was.

Third, even though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was much lower than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effect of social conflict on unmarried mothers' self-esteem was as powerful as the social support. This means that the effect of social conflict also can be very important.

These findings suggest a new direction for intervention for unmarried mothers. Until now, the major target of intervention in social relationship was to strengthen existing social support or establish new social support system. Now, in addition to augmenting social support, we should pay attention to removal of social conflict, since it has significantly powerful effect on the adjustment of unmarried mothers.

Key words: social relationship, social support, social conflict, self-esteem of unmarried mothers.

[접수일 2004. 2. 29. 게재확정일 2004. 5. 27.]